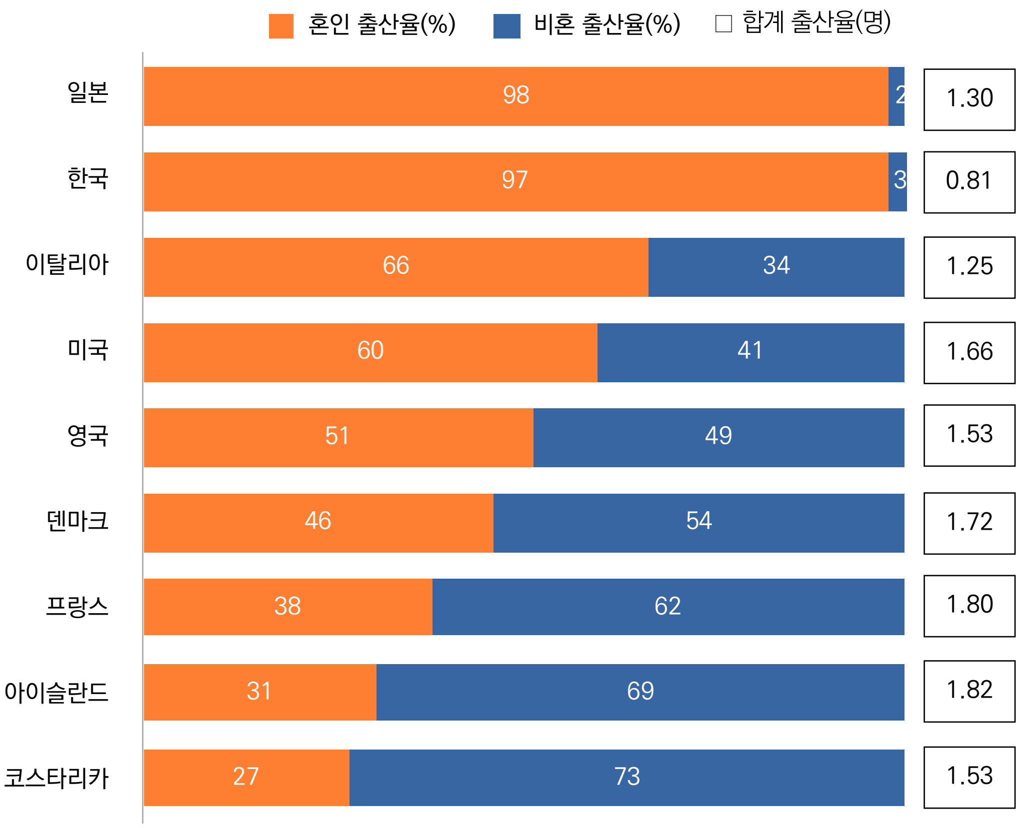
비혼 출산율이 높은 나라, 대체로 합계 출산율이 높다!

-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최하위(꼴찌)인 0.81명이며, OECD 평균 1.58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절반 수준이었다.
- 출산율은 '혼인 출산율'과 '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율'(동거커플 또는 독신 여성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하는 비율)의 합으로 볼 수 있다. 이 두 가지 유형의 출산율을 OECD 주요국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. 한국의 경우 '혼인 출산율'은 OECD 국가 중 1위(97%)인데 반해 '비혼 출산율'은 3%로 일본(2%)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.
- OECD 주요국 중 프랑스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높은 편인데, 비혼 출산율이 10명 중 6명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를 종합해 보면 비혼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전체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

[그림] OECD 주요국의 혼인/비혼 출산율과 합계 출산율** (%, 명)



*자료 출처 : jtbc 뉴스, OECD 최악의 출산율 한국, 혼인 출산율은 독보적 1위…이유는?, 2023.06.06.
(https://news.jtbc.co.kr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129559)
**출산율(혼인/비혼)은 OECD의 2020년 자료, 합계출산율은 2021년 자료 기준임